

웹 사이트 개발 및 운영 쉬워, 시간도 대폭 단축

단순 수정 업무는 현업에서 직접 수행, 디자인 작업 결과 즉시 확인 가능



보통 금융권 웹 사이트의 페이지 수는 3000~4000페이지에 이른다. 수시로 변하는 금융 상품의 특성상 페이지 관리를 수시로 해줘야 한다. 이 때문에 여기에 쏟아붓는 작업 시간이 만만치 않다. 예를 들면 웹 페이지의 글자 오·탈자에 대한 단순 수정 작업을 비롯해 금리 변동에 따른 페이지의 수정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.

부산은행에는 예금 담당, 대출 담당 등 30여 개의 현업 부서마다 별도의 상품 담당자가 존재한다. 현업 부서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디자인 작업을 하고, 웹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는 e-Biz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.

e-Biz사업부에서는 부서별로 쏟아져 들어오는 자료를 받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수정 및 관리 작업을 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 신속하게 웹 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. 또 자료의 정합성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아 은행 웹 페이지에서 결제, 승인 등의 업무 처리를 할 때 문제 발생의 우려까지 안고 있었다.

웹 개발 및 관리 시간 20~30% 절감

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e-Biz사업부의 업무를 분산 처리하고, 현업 부서에서 처리한 텍스트 자료를 웹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12월 CMS 도입을 검토했다.

부산은행 e-Biz사업부 김철수 대리는 “기존에도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CMS 툴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CMS를 본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”고 말한다.

부산은행은 2006년 1월 웹 기획담당 ‘e-Biz 사업부’, 웹 개발담당 ‘IT금융개발부’, 상품담당 ‘상품 개발부’로 TFT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6월 CMS를 정식 오픈했다. 금융 업무의 특성상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당시 국내의 CMS 제품들의 성능 및 기능은 물론, 향후 사이트의 개편이나 추가 오픈 시에 대비

해 확장성, 지원 여부 등을 검토했다. 그 결과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CMS인 'ICS4'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.

부산은행은 ICS4의 도입으로 기존 웹 페이지 개발 및 관리에 드는 업무 시간의 20~30%를 단축했다고 말한다. 기존 CMS는 웹사이트 관리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료 등록, 수정, 삭제 등 개발부서에 요청되는 사항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개발자 중심의 틀이었던 반면 이번에 새로 구축한 CMS는 상품개발 및 웹 기획 등 현업 담당자들도 직접 웹에디터를 활용해 간편하게 단순한 수정 업무 정도는 할 수 있어 웹 사이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부산은행 측의 설명이다.

김철수 대리는 “실제로 e-Biz사업부의 경우 이미지 코딩 작업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 HTML로 수정했을 때에 비해 업무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”고 말한다. 그는 “초기 웹 사이트의 구조를 만들고, 형식을 정의하는 업무는 개발자들이 맡고 있지만 웹 사이트가 오픈된 이후 운영 및 관리의 70~80%는 현업 부서에서 담당한다”며 “웹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웹 기획부서의 관리 업무가 매우 간편해졌다”고 강조했다.

뿐만 아니라 은행은 웹 기획부서와 웹 개발부서가 별도로 분리돼 있어 기존에는 웹 기획부서에서 디자인 작업을 완료하면 웹 개발부서에서 이를 받아 실제 서버로 올려놓는 작업을 벌였다. 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미지 작업을 했을 때와 페이지 작업을 했을 때의 차이가 커서 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김 대리는 얘기한다. 하지만 ICS4 도입으로 디자인 작업을 마치자마자 작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웹 사이트 수정 및 관리하는데 드는 과정이 단축됐

부산은행 홈페이지 화면



을 뿐만 아니라 웹 개발부서와 기획부서 간 의사전달도 한결 명확해졌다는 것이다.

ICS5로 업그레이드해 업무 간소화

부산은행은 올해 1월 ICS4에서 ICS5로 CMS를 업그레이드했다. 닷넷에 대한 서비스 및 일부 기능 지원이 미흡한 ICS4의 문제를 ICS5의 도입으로 개선한 것이다. ICS5는 메뉴의 한글화로 현업 담당자들이 좀더 쉽게 웹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.

이 밖에 기존에는 콘텐츠 작성, 사이트의 메뉴 관리, 최종 서버에 올리는 배포 작업 등이 기능상 나뉘어져 있었는데 ICS5에서는 메뉴 관리 내에 배포 작업이 포함되는 등 일정 영역에 기능들이 통합돼 버튼 클릭 수가 줄어든 점도 도입 효과로 꼽힌다.

김정은 기자 jekim@com-world.co.kr

Interview
김철수 부산은행 e-Biz사업부 대리

“CMS 도입 시 웹 사이트 관리 및 운영 정책 명확해야”

은행마다 CMS를 이용하는 특성이 다른 것 같다.

대부분의 은행들은 내부 직원 업무용 사이트가 아닌 대고객용 사이트에 CMS를 활용하고 있다. 일부 은행들의 경우 웹 사이트를 포탈화하고 있는데 비해 부산은행의 경우 CMS를 철저히 고객들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. CMS를 이용하는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있겠지만, 부산은행은 현업에서 콘텐츠를 자체 수정 및 관리,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다른 은행 사이트들에 비해 화려하진 않지만 고객들이 정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.

CMS를 운영하면서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면.

부산은행은 아이온 ICS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. CMS와 보안 연동 등 금융 업무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에 관한 개선의 여지가



가 있다. 또 워드, 한글 문서를 웹(HTML) 문서로 좀더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CMS 내에 웹에디터의 기능이 개선되었으면 한다.

CMS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.

기업마다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. 각 기업별로 CMS를 이용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유사 업종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. 웹 페이지를 만들 때 CMS를 이용하느냐,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. CMS의 도입 시 페이지 요건 등을 비롯해 웹 사이트 관리 및 운영 정책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.